장동건과 김태희의 부활 때 모습은?

(고전15:35~58)

35.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38.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42.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장동건과 김태희의 부활 때 모습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영화배우 장동건 씨와 김태희 씨가 부활할 때가 되어서 저희들과 함께 다같이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비교가 안 될 만큼 멋진 남자 멋진 여자로 장동건 씨와 김태희 씨는 부활하고, 우리는 지금과 같이 비슷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겠습니까?
또 노트르담의 꼽추는 부활하면 여전히 꼽추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을까요?
브래드 피트가 부활하면 여전히 백인으로 부활합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어떨까요? 부활할 때 흑인으로 부활합니까?
궁금해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여간 부활해서도 장동건 씨는 지금의 장동건 씨로, 김태희 씨는 지금의 김태희 씨처럼 부활한다면, 우리 억울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은 생긴 모습 하나만 갖고도 세상에서 얼마나 명성을 떨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생긴 모습 갖고 아무리 돈 벌려고 그래도 안 돼요.
이건 뭐 보통 억울한 게 아니지요?
노트르담의 꼽추같이 생긴 그런 분들은 부활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냐 하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것은 지금의 몸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마는, 전혀 그렇게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강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뭡니까? 육체에요 육체, 육으로 이루어진 몸, 육체.
그럼 영의 몸이 뭡니까?
신령한 몸, 신령한 몸 그러는데 영체입니다, 영체, 영으로 이루어진 바디.
그걸 입고 부활할 거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는데, 그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체를 입고 부활하게 되면, 육체 때에는 이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부활할 때에는 이 영체에는 여자가 없고 남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 궁금해요.
제가 부활한 집사람을 만나게 될 때, 아! 여보라고 불러야 됩니까? 자기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대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개 엄마라 그래야 됩니까?
자식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엄마라 그래야 됩니까?
엄마는 여자가 엄마이지, 그때는 여자도 아닌데 어떻게 엄마가 되고, 여자가 아닌데 여보라고 부를 것이며, 여자가 아닌데 자기라고 부르겠습니까?
아!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김태희 씨를 봐도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동건 씨를 봐도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다시 부활할 때는, 장동건 씨의 부활한 모습보다는 조금 더 잘생기면 좋겠어요.
이 지상에서 장동건 씨보다 못생겨 가지고 억울했던 거 생각하면, 뭐 장동건 씨가 잘해서 잘생긴 게 아닌 건데, 내가 못해서 못생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조금 장동건 씨나 김태희보다는 잘생긴 모습이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도대체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도대체 부활한다는 게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럼 뭐 늙어서 죽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희 할머니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중학교 쯤 다닐 때일까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글쎄,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모습은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제일 예쁜 모습이 18살 때쯤이니까 18살 때나 16살 그때쯤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겠느냐?'
저희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영락교회 묘지가 너무너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무덤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뼈가 막 뒤섞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습하는데, 누구 뼈가 누구 뼈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뼈를 나누어서 다시 다 봉함을 했어요.
부활할 때는 내 팔 반쪽, 남의 팔 반쪽 막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한다.
성경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모습일지.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힌트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우리에게 부활할 때 신령한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래도 근거로서 확실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보장되었음을 알려 주시면서도, 사도바울이 이상하게 신령한 모습에 관한 부활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는 어쨌든 주님께서 인간으로 사셨다가 부활을 하셨으니까, 주님의 부활하실 때의 모습을 한 번 먼저 떠올려 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의 모습은 분명히 공생애 때의 모습이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마가 의심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손가락의 못 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고, 허리의 창자국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틀림없이 공생에 때의 모습이고,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의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의 선생님으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일곱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를 고치신 주님으로서 부활을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고 매듭을 짓기에는 또 불가능한 것이, 제자들이 무서워 가지고 문을 다 닫아 걸고, 정말 물샐틈없이 꽉 막힌 방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때의 모습이긴 하지만 벽을 통과하시는 걸 보면, 공간의 개념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히 공생애 때의 모습이지만, 우리와 같은 고깃덩어리로 이루어진 육체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공생애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지마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이니까 단순히 고깃덩어리로 이루어진 육체는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성경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 놓고, 한 번 생각해 봐요.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천국에 계신 모습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계신 모습에 대한 성경의 묘사들과 부활하신 후에 모습을 비교하면 일치하지가 않아요.
공생애 때 사시던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건 맞는 거 같은데, 물론 육체는 아닌 거 같은데 모습은 맞아요.
그런데 그 모습마저도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뒤에,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나온 것과 비교해 보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성경적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있어요.
먼저,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모습.
그러니까 빛의 덩어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빛의 덩어리.
그리고 그 빛의 덩어리를 보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이 세상을 다 잊어버립니다.
산 아래에 삶의 현장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삶 아래의 삶에도 아름다운 곳, 좋은 곳, 마음이 홀딱 반하게 될 만한 좋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산에서 살자고 말할 정도로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히 부활하셨을 때의, 공생애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요한이 계시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바울이 또,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런데 이때는 그냥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과 비슷하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는 형체를 봤지만 바울은 그나마 형체도 못 본 채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 버리고, 소리만 듣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 예수로서 사시던 그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궁극적인 모습, 이것은 아마 변화산에서의 모습도 아닐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모습도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이신 분이 우리 눈에 보이게, 변화산의 모습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의 모습처럼 보일 리도 없습니다.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바람 같아서 세상은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 지상 40일 동안은 단지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시기 위해 취하신 임시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51절에 보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이 순식간이라는 말은, 더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시간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경우에, 죽은 사람이 죽음에서 깨어나서 부활할 때, 또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 있는 사람들이 몸이 바뀌는 것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지극히 제일 작은 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보다 더 작은 시간의 범위 안에서 확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승천하시면서, 공생애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구름 위에 가려졌을 때, 진정으로 하늘나라에서 머무시게 될 때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문제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령한 몸의 정체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각,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의 몸체에요.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한 번 보면 이렇습니다.
1장13절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같다'는 말이 중요해요, 'ㅇㅇ 같다'라고 얘기해요, 'ㅇㅇ 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

곱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대로라면 이 무슨 사람입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의 모습도, 어떤 모습도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왔느냐?
성령에 감동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을 해서 영체이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각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육체의 5감각이 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성령이 육의 감각이 되어 주셔서 영체로 머물고 계시는 주님을 봤는데, 도대체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성령을 통해 본 영체를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불꽃같고, 털의 희기가 눈 같은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영체이신 주님을 봤고, 봤을 때 느끼는 감동을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이 하늘나라에서 눈이 불꽃같고, 털의 희기가 흰 눈 같고, 발이 주석 같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본 영체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니 이렇게 표현했다 이겁니다.
결국, 모습은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나라에서의 영체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도록 번역해 주셨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저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볼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계신 그 모습을.
그런데,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영체이신 모습을 형상으로 번역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된 모습을 보고 이들이 황홀경에 빠져 버립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 영체로 부활하게 되면, 아마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고 황홀경에 빠질 거예요, 너무 멋져서.
제가 장 동건 씨보다 훨씬 못하지 않을 겁니다. 김 태희 씨보다 훨씬 못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사람 부활한 모습을 보면, 야~! 다시 태어나도 저 여자와 살아야 되겠다고 아름다운 모습일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노트르담의 꼽추가 부활을 해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몸이고, 이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몸으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못생긴 거, 이런 거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80년을 살아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동원참치 광고 보면, 참치가 바다 수면 위로 튀어 올라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참치가 바다 속에서 사는 시간과, 바다 수면 위로 튀어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시간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 정도로 짧은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이 80년 90년 산다 그래봐야,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고 찰나에 불과합니다.
영원토록 영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 흑인으로 태어났건, 저처럼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건 아무상관 없어요.
그까짓 거 찰나에 지나는 순간 좀 못생긴 대로 살게 내버려 둡시다.
장 동건 씨, 김 태희 씨가 찰나 동안 좀 우리보다 잘생긴 거? 인정해 주자고요, 박수쳐 줘요, 그까짓 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영원히 살 때의 모습은, 절대로 밑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 변화산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본 그 모습을 좀 번역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못 자국이 나있는 그 손, 허리에 창 자국이 나있는 그 옆구리를 그대로 지니시고 공생애 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셨을까요?
주님이 공생애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말씀이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너와 내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목소리가 다릅니다, 지문을 찍으면 지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이 다 몸 때문에 구분이 가는 거예요.
'나'가 누구냐? 라는 정체성이 몸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체로 나타나시고, 그 영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산에서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서의 그런 모습으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분이 공생애 때의 그분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연속성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공생애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더라도 분명히 사도바울이 말한 영체로 부활을 하겠지마는, '전혀 다른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체의 모습을 띈다 할지라도, 부활이란 지상에서 살고 있는 '나'라는 인격체가 영체를 입고 부활하는 것이다'라는, 이 연속성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 연속성을 붙잡아 주시는 마음이 주님 안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 큰 과제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아까 읽은 본문 중에,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다 있고 나서 17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사도요한이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모습을 성령을 통해 보게 하셔서 마음에 감동이 주어졌고, 그 성령을 통해 보게 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모습을, 성령을 통해 보게 된 그 감동대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겉모습 상으로는 그분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던 자기 비하의 나사렛 예수와 일치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종의 모습으로 사셨고, 볼품없이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18절에 '내가 바로 죽었던 그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사람이라고, 그 인격의 동일성을, 같은 인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사람을 만나실 때에 큰 과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와 함께 동고동락 했던 그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전이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격자체가 영체를 입고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영체가 주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볼 때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느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니!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워?
아이고, 남의 얘기하네, 당신은 더 아름다울 거 같은데, 내 모습보다.
그런 모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살아 있을 때에는 몸을 통해서 '나'라는 인격이 다른 인격과 구분이 되었었는데, 이 몸이 다~ 없어지고 육체가 다 없어지고 내 인격만 덩그렇게 남고 순식간에 몸을 입게 되겠지마는, 그 순식간에 영체를 입게 되기 전에 '나'라는 인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라는 인격체에 지금 육체가 덧입혀진 것처럼, '나'라는 인격에 신령한 몸이 덧입혀지기 전

에, 내 인격의 모습은 어떻게 구분이 가나?
몸이 없으니까 나는 아버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있을 때 아버지고 아빠고 누구의 아들이지, 몸이 있으니까.
우리 인격의 정체성, 도대체 내 인격이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몸이 없을 때에 어떻게 구분일 갈 수가 있겠는가?
내가 구분이 가야 내가 '나'로서 영체를 입고 부활할 거 아닙니까?
구분이 안 간다면 어떻게 해요.
근데 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몸이 없는 상태에서 다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데, 몸이 없는 '나'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구분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내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장 동건 씨나 김 태희 씨를 보면서 푸념할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게 될 때, 이 잠깐 사는 세상에서의 모습은 아~무상관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신령한 영체로서 부활을 하게 될 날을 꿈꾸며 살아가자 이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조금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졌던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저희 가족들이 저를 볼 때, 반쯤은 황홀경에 빠질 것 같은 아름다운 영체로 부활을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그저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고, 어서 부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 안에서 오늘 좀 부족한 것들 다 거뜬히 이겨 나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